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성(The Possibility and Limits of Calvin's Presbyterianism)

송 인 설(교회사 · 전임강사)

I. 서론
II. 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역사적 발전
  A. 기원
  B. 제네바 교회법(1541)
  C. 「기독교 강요」(1559)
III. 칼빈의 장로회 제도에 대한 신학적 비판
  A. 장로회 제도의 가능성
    1.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 정치론
    2. 평신도의 교회 정치 참여
    3. 대표성과 협의회
  B. 장로회 제도의 한계성
    1. 목사와 장로의 관계
    2. 목사와 공동체의 관계
    3. 장로와 공동체의 관계
IV. 「BEM」 문서(1982)의 교역 이해
  A. 일반 교역과 안수 받은 교역
  B. 안수 받은 교역의 개인적, 집단적, 공동체적 차원
V. 결론

I. 서 론

몇 년 전, 한 장로교 교단 목회자에 대한 설문 조사가 있었다. “21세기 미래 사회 속에서 장로교 정치 제도는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68%가 ‘아니다’라는 부정적 응답을 했다고 한다.[1] 장로교회 목사가 장로교 정치 제도를 불신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본래 ‘장로회 제도’(Presbyterianism)는 목사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collegium)가 교회를 다스리는 대의적 정치 형태(representative polity)를 말한다.[2] 그런데 최근 우리는 ‘목사 주도적 교회다.’ 또는 ‘장로 주도적 교회다.’ 하는 말을 흔히 듣는다.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장로회 제도의 협의회성의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로회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글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장로교회의 모체인 제네바 교회의 교회 정치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이유였을까? 혹시 칼빈의 장로회 제도 안에 신학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

1)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편, 「오늘의 한국 장로교 정치제도 이대로 좋은가?」(서울: 엠마오, 1998), 332; 1997년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는 심창섭, 손병호, 이성희 목사의 발제를 기초로 한국 장로교 정치 제도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심창섭은 장로회 제도는 성경적 근거도 있지만 제네바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손병호는 칼빈의 장로회 제도를 성경적 모델로 보고 엄격하게 실천할 것을 주장했고, 이성희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장로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손병호, 「교회정치학 원론」(서울: 양서각, 1984), 245-46.

이 글은 II장에서 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장로회 제도의 기원, “제네바 교회법”(1541), 「기독교 강요」(1559)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칼빈의 장로회 제도에 대해 신학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선 장로회 제도의 가능성을 논의한 후, 장로회 제도의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IV장에서는 이런 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BEM」 문서(1982)의 교역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일반 교역(general ministry)과 안수 받은 교역(ordained ministry)의 상호 관계성, 그리고 안수 받은 교역의 개인적, 집단적, 공동체적 차원이 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약점을 얼마나 극복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보다 더 온전한 교회 정치가 되기 위해 「BEM」 문서의 교역 이해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역사적 발전

A. 기원

장로회 제도는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려는 종교개혁자들의 이념에서 탄생하였다. 루카스 피셔에 의하면, 장로회 제도의 기원은 15세기 중반 ‘보헤미안-모라비안 형제단’(Bohemian-Moravian Unity of the Brethren)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형제단은 장로(목사와 감독)와 집사의 ‘이중직’의 직제를 갖고 있었고, 장로는 목사와 회원을 지도하고 감독했다. 형제단은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여러 번

만났고, 1540년에는 스트라스부르그를 방문하여 칼빈과 부처와 몇 차례 토론을 벌였다.[3]

츠빙글리(1484-1531)는 취리히 교회에서 설교자의 직분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시의회의 원로(*seniores*)를 초대 교회의 장로와 동등하게 보고, 그들에게 교회의 정치와 치리를 맡겼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1525년 시의회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목사 2명과 시의회 대표 4명으로 '결혼 법정'(marriage court)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1년 후에는 '도덕 법정'으로 확장되었다.[4] 우리는 여기서 장로회 제도의 치리 기구의 씨앗을 발견한다.[5]

1530년 바젤의 종교개혁자 외콜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 1482-1531)는 마태복음 18:15-18에 근거하여, 사도 시대처럼 교회 치리를 감독하기 위해 장로들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목사 4명, 시의회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으로 구성된 12명의 위원회가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담당하고, 지역 교회에서는 3명의 위원회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인의 삶을 치리하는 감독자(censors)를 성경의 장로와 동일시했다. 그러나 평신도 대표를 교회 치리 기구에 포함시키려는 그의 계획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무산되었다.[6]

1531년 스트라스부르그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

---

3) Lukas Vischer, "The Office of the Elders", in *The Ministry of the Elders in the Reformed Church*, ed. by Lukas Vischer(Bern: Evangelische Arbeitsstelle Oekumene Schweiz, 1992), 23-25.

4) 위의 책, 28-29.

5)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36.

6) Lukas Vischer, ed., *The Ministry of the Elders in the Reformed Church*, 31-32.

(Martin Bucer, 1491-1551)는 외콜람파디우스의 영향을 받아 '교회 관리인'(Kirchenpfleger)이라는 직분을 도입했다. 이들 21명의 교회 관리인단 중에서 3분의 2는 시의회 대표였고, 3분의 1은 평민 출신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목사의 설교와 삶을 감독하다가 1534년부터 목사와 함께 모든 세례 교인의 삶을 감독했다. 부처는 이 '교회 관리인'을 신약 성경의 장로와 동일하게 보았다.

1538년 부처는 「참된 목회」(*Von der wahren Seelsorge*)에서 그의 직분 이해를 더욱더 발전시켰다. 부처에 의하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pastors)와 교회의 치리를 맡은 장로(*eltisten*, elders)가 함께 '목자'(shepherds)로서 교회를 다스린다. 목사와 평신도로 구성된 '목자'는 '협의회'(collegium)를 구성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감독(episcopal director)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처는 장로를 설교하는 장로와 설교하지 않는 장로로 구분했다. 그리고 교사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7]

부처는 사실상 장로회 제도의 '건축자'였다.[8] 왜냐 하면, 이미 부처에게서 목사, 장로, 교사, 집사의 네 가지 직분이 다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는 장로회 제도를 시행해 보려는 계획만 갖고 있었다.[9] 슈말칼덴 동맹의 패배 후, 부처는 1549년 스트라스부르그를 떠나 영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처의 구상은 스트라스

---

7) 위의 책, 33-35.

8) Hendrikus Berkhof, *Christian Fait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Faith*, trans. Sierd Woudstra, (Grand Rapids, Eerdmans, 1979), 381.

9)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 1968),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서울: 이레서원, 2001), 26, 65.

부르그에 체류하던(1538-41) 칼빈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B. 제네바 교회법(1541)

칼빈은 1541년 "제네바 교회법" 이전에는 장로회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 예를 들어, 칼빈은 「기독교강요」 초판(1536. 8)에서 마태복음 18:17-18에 근거하여 교회의 치리권이 주교가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하였으나(V. 30), 이 치리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0] "제네바 신앙고백"(1536. 11)도 마찬가지였다. "출교의 권징은 진실로 우리 주님에 의해 좋은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 있어야 할 하나의 거룩하고 유익한 것이다."[11]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누가 어떻게 출교를 시행해야 할지 아무런 말이 없었다.

1537년 1월 칼빈은 목사회에 "제네바 교회와 예배의 조직을 위한 조항"을 제출했다. 칼빈은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성만찬을 행할 것을 주장하고,[12] 도시의 각 행정 구역마다 생활이 올바른 평신도를 감독자로 세워 성만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치리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

10)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초판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사, 1996).

11) "The Genevan Confession",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by J. K. S. Reid, LCC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31.

12)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proposed by the Ministers at the Council", i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50.

는 여기서 평신도 감독자에 대한 칼빈의 초기 착상을 발견한다.[13] 물론 1538년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 추방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1541년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의 부름을 받고 다시 돌아온 후, 시의회에 "제네바 교회법"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여기서 칼빈은 부처를 따라 처음으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 가지 직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하신 직제는 넷이다." "첫째는 목사요, 둘째는 교사요, 셋째는 장로요, 넷째는 집사다."[14] 주님이 바로 이 네 가지 직분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칼빈은 네 가지 직분 가운데 목사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목사는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례, 치리를 맡았다.

> 성경이 또한 종종 장로, 감독, 또는 교역자라고 일컫는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교육하고 훈계하며 권고하고 견책하고, 나아가서 성례전을 집례하고 장로와 동료 목사들과 함께 형제애적 교정을 부과하는 것이다.[15]

---

13) 위의 책, 52. "이 일을 수행하기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자들 중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쉽게 부패하지 않고 생활이 바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어떤 사람들을 임명하고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들은 제네바 시의 모든 행정 구역에 분산 배치되어 각 지역의 사람의 삶을 감독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들이 어떤 교인에게 눈에 띄는 악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가 누구이든 그에게 충고하고 교정할 것을 형제애로써 권고해야 한다."

14)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s", in 위의 책, 58.

15) 위의 책.

다음 칼빈은 장로를 성도의 윤리적 삶을 감독하는 직분으로 소개했다. 장로는 교인의 삶을 권징하고 치리한다는 것이다.

> 장로의 직무는 모든 성도의 삶을 감독하고, 그들 보기에 빗나가고 있거나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들 자신이, 그 다음에는 다른 이들과 협의하여 형제애적 교정을 부여하는 것이다.[16]

칼빈에 의하면, 장로는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책망할 것과 혐의가 없고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 분별을 가진 평신도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장로는 소의회로부터 2명, 60인 의회로부터 4명, 200인 의회로부터 6명 등 전체 12명이 선출되어, 제네바 시 각 구역에 배치되었다. 장로를 선출하는 방식을 보면, 소의회가 적격자를 지명하고 목사들이 동의한 후에 200인 의회가 승인했다. 그리고 매년 말 장로 직분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다시 결정했다. 물론 신실하게 장로직을 수행하는 한, 그만두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말이다.[17] 장로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들과 함께 모여 교회의 무질서한 일들을 처리했다.[18]

1561년 개정된 "제네바 교회법"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협의회를 '당회'(consistoire)라고 불렀다.[19] 본래 '콘시

---

16) 위의 책, 63.
17) 위의 책.
18) 위의 책, 70.
19) "Ecclesiastical Ordinances, 1561", in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스토아'는 중세 때 추기경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목사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교회 치리 기구를 가리키게 되었다.[20]

C. 「기독교 강요」(1559)

칼빈은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 가지 직분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다.[21] 칼빈은 특히 교회 정치를 교회론에 근거하여 전개한 점에서 탁월했다. 칼빈에게서, 교회는 하나님의 "외적인 은총의 수단"이었다.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IV. 1. 2-3), 신자의 "어머니"와 "학교"(IV. 1. 4), "모든 선택된 사람들"(IV. 1. 7)로 이해했다. 그리고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만찬의 집례를 가시적 교회의 두 가지 표지로 보았다(IV. 1. 9).[22]

Government, ed. David W. Hall & Joseph H. Hall (Grand Rapids: Eerdmans, 1994), 147-48.

20) Ott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28-29, 79-80. "당회는 제네바의 교회 치리 기구에서 온 것이지, 디모데전서 4:14의 '장로의 회'에서 온 것이 아니다."; 제네바 당회는 처음에는 치리 기구였다. 사법적 개념이 강한 교회 치리 기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당회는 교회의 사법적 기능 즉 권징이 약화되면서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권징의 사법적 기능이 비현실적으로 변하고, 행정적 기능을 위주로 하는 당회로 변했다. 황규학,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서울: 에큐메니칼 연구소, 2005), 18.

21) 칼빈은 1543년 「기독교 강요」에서 '사중직'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위의 책, 65.

22) John Calvin,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최종판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사, 2004).

칼빈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데, 특히 교회 직분을 통해 다스린다고 주장함으로써, 직분의 신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교회에서는 오직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하고 권위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하며, 또한 이러한 권위는 오직 그의 말씀으로만 시행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 주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임재하여 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마 26:11), 우리는 주님이 사람들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일종의 대리자로서 그의 뜻을 입으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신다(IV. 3. 1).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교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직분자는 "주님을 대변하는 자"(IV. 3. 1)이고, "신자들을 한 몸으로 묶는 주요한 끈"(IV. 3. 2)이다. 칼빈은 그 중에서도 교회의 존속을 위해 목사의 직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는 데 사도적 직분과 목회의 직분이 필수적이다"(IV. 3. 2).

이어서 칼빈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다. 칼빈은 우선 목사와 교사의 성경적 근거를 에베소서 4:11에서 찾았다. 목사와 교사는 사도적 직분에 해당한다(IV. 3. 4). 목사는 말씀 설교와 성례전 집례와 치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교사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 목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여

> 참된 경건으로 향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하며,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고 권징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이다.
> 사도들이 온 세상을 위하여 수행한 그 일을 각 목사마다 그에게 맡겨진 자기 양 떼들에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IV. 3. 6).
>
> 교사들은 권징이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경고나 권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성경 해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신자들 가운데 교리를 온전하고도 순결하게 지킬 책임을 지지만, 목사의 직분에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된다(IV. 3. 4).

칼빈은 또한 장로의 성경적 근거를 로마서 12:7-8과 고린도전서 12:28의 '다스리는 자'에서 찾았다. 장로는 도덕적 과실을 책벌하고 권징을 시행한다.

> 다스리는 자들(고전 12:28)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운 장로들로서 감독들과 더불어 도덕적인 과실들을 책벌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 할 것이니라"(롬 12:8)는 바울의 진술을 달리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교회마다 처음부터 경건하며 진지하며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 택한 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장로회(senate)가 있어서 과오들을 교정하는 일을 책임 맡았던 것이다(IV. 3. 8).

칼빈은 "교회의 재판권(jurisdiction)"에서 장로 직분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교회의 재판권은 "신령한 다스림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나의 질서"다. 장로는 교회 법정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다.

> 이 목적을 위하여 시초부터 교회에 법정이 세워져서 도덕적 문제들을 책벌하고, 악행들을 조사하며, 열쇠의 임무를 시행하도록 하여온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언급하는 바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질서를 지칭하는 것이다(고전 12:28). 이와 비슷하게 로마서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 할 것이니라"고도 말한다(롬 12:8). 이는 세속의 관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 그 당시에는 그들 중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일에 연루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IV. 11. 1).

칼빈은 또한 디모데전서 5:17를 인용하면서, 말씀은 전하지 않으나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가 바로 제네바 교회의 장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또한 디모데서에서도 그는 장로들을 두 종류로 -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과 또한 말씀 전하는 일은 하지 않으나 잘 다스리는 자들로 -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딤전 5:17). 이 후자에 속한 장로들이 바로 도덕적인 문제들을 감독하고 열쇠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도록 지명을 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IV. 11. 1).[23]

---

23) 칼빈의 디모데전서 5장 17절 주석을 참고하라. "이 구절에

이어서 칼빈은 로마서 12:7-8과 사도행전 6:3을 집사의 성경적 근거로 보았다. 집사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직분이다(IV. 3. 9).

우리는 지금까지 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장로회 제도는 칼빈이 아니라, 외콜람파디우스와 부처 같은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다. 둘째,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장로회 제도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 교회 정치가요 신학자였다.

물론 우리는 외콜람파디우스와 부처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려는 이념을 갖고 장로회 제도를 생각해 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장로회 제도가 성경 속의 유일한 교회 정치 제도일까? 성경의 교회의 직분은 네 가지뿐일까? 네 가지 직분에 대한 칼빈의 성경 주석이 모두 다 정당할까?[24] 성경 주석의 결과로

서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이 추론될 수 있는데, 이는 그들 모두가 가르치도록 임명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명백한 의미는 잘 영예롭게 다스리지만 가르치는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지하고 잘 검증된 자들을 선출했고, 이들은 목사들과 함께 공동의 협의회에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치리를 집행하고 도덕의 교정을 위한 감독자(censors)로 활동했다." *Calvin's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 T. A. Amail (Grand Rapids: Eerdmans, 1973), p. 262;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9권 (서울: 성서원, 1999), p. 504.

24) 제이는 칼빈이 제시한 성경적 근거가 성서적으로 그렇게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교회 직분의 성서적 근거를 발견하려는 칼빈의 시도는 그 고유의 전통적인 교직을 성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톨릭 교회나 감독

네 가지 직분이 나왔을까? 아니면 네 가지 직분을 전제하고 성경으로 정당화 했을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안고, 칼빈의 장로회 제도에 대해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III. 칼빈의 장로회 제도에 대한 신학적 비판

A. 장로회 제도의 가능성

1.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 정치론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우선 교회론에 근거하여 교회 정치를 논한 점에서 신학적으로 탁월했다. 칼빈은 교회 정치의 유용성의 측면을 넘어 그 신학적 측면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칼빈에게서, 교회는 하나님의 '외적인 은총의 수단'이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직분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는 주장함으로써 교회 정치의 기독론적 토대를 확립했다.

2. 평신도의 교회 정치 참여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또한 평신도를 교회 정치에 참여시킨 점에서 특별한 공헌을 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나 회중 교회의 시도에 비해 훨씬 더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칼빈은 억지로 그 증거를 갖다 붙이고 예상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교묘히 변명하여 모면하였다." E. G. Jay, *The Church: Its Changing Image Through Twentieth Centuries(I, II)*, 주재용 역, 「교회론의 변천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42.

교회에서는 고위 성직자(hierarchy)가 교회를 다스렸다. 그런데 제네바 교회는 목사만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선출된 장로와 집사가 교회 정치에 동참한 것이다.

제네바 교회에서 장로는 교인의 삶을 감독하고 치리하는 일을 맡은 평신도였다. 평신도 중에서 선출되어 교회의 치리를 맡은 것이다.[25] 칼빈이 평신도 장로와 집사를 교회 정치에 포함시킨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교회 정치 형태와 비교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3. 협의회와 대표성

제네바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매 주일 한 번씩 당회(consistory)로 모여 교회 치리를 협의했다. 목사 혼자 교회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협의회(collegium)를 구성하여 다스렸다. 우리는 여기서 장로회 제도의 집단적(corporate) 통치의 원리를 본다.

제네바 교회는 또한 장로가 평신도 가운데 선출되어 평신도의 대표로 당회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적(representative) 정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장로회 제도의 대표성의 원리를 발견한다.

그러면 제네바의 당회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고대 교회의 정치 체제와 관련하여, 장로회(장로단)가 장로 중 한 사람을 감

---

25) 물론 제네바 교회의 장로는 신약 성경과 고대 교회의 장로와 다르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였고, 고대 교회에서 장로는 개교회의 목회자였다. 장로들은 전문적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의 교역자였다.

독으로 부르고, 감독이 장로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다스린 것을 소개하였다(IV. 4. 1-2).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간접적으로 '동료들 가운데 첫째'(*primus inter pares*)의 원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B. 장로회 제도의 한계성

1. 목사와 장로의 관계

그러나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에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사실 칼빈은 고대 교회의 장로의 사역을 제네바 교회에서 두 개의 사역으로 나누어, 하나는 목사에게 다른 하나는 장로에게 주었다. 목사는 안수 받은 직분으로서 말씀 설교와 성례전 집례를 맡았다. 반면에 장로는 평신도로서 교인의 치리를 맡았다. 그러면 장로는 목사와 동등한 의미의 장로인가? 아니면 교회 치리 문제에서 목사를 돕는 직분에 불과한 것인가? 만일 장로가 목사와 동등하다고 하면, 장로도 목사처럼 안수를 받아야 하는가?[26] 칼빈에게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동등하게 보이기도 하고 종속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모호한 관계는 이후 개혁 교회에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문제로 남게 되었다.[27]

2. 목사와 공동체의 관계

---

26) Lukas Vischer, ed., *The Ministry of the Elders in the Reformed Church*, 42.

27) Hendrikus Berkhof, *Christian Fait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Faith*, 381.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또한 교회의 직분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공동체 전체의 역할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칼빈은 분명히 교회를 직분자 중심으로 이해했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 직분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수단이다. 교회의 직분자는 주님을 대변하는 자다.

오토 베버도 칼빈이 목사 직분을 교인의 공동체 위에 두었다고 보았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성립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직분자를 통해 선포된다. 그러므로 말씀의 종인 목사가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28]

이러한 칼빈의 직분 중심적 교회 이해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교회는 일차적으로 '말씀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강조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참여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을까? 확실히 칼빈은 루터만큼 만인 제사장설을 강조하지 않았다.

3. 장로와 공동체의 관계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장로와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모호성이 있다. 칼빈은 과연 장로와 교회 회중의 관계를 공정하게 다룬 것일까? 장로는 본래 평신도 중에서 선출되는 것인데, 과연 장로는 평신도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장로가 평생직으로 안수까지 받으면서, 동료 평신도 위로 격상된 것은 아닐까? 장로도 평신도 대표로서 교회 회중에게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

28) Otto Weber,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69-70.

사실 장로 직분은 전통적 교회 정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본래 성직자가 하던 감독 기능을 평신도 대표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평신도 신분으로서 성직자가 하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장로가 목사와의 관계와 회중과의 관계에서 이중적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칼빈의 장로회 제도가 목사와 장로의 관계, 목사와 공동체의 관계, 장로와 공동체의 관계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목사와 장로의 관계의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목사가 공동체에 대해 일방적인 관계를 극복할 수 없을까? 장로가 평신도 대표로서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앙과 직제' 문서 가운데 「BEM」 문서의 교역 이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IV. 「BEM」 문서(1982)의 교역 이해

A. 일반 교역과 안수 받은 교역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앙과 직제'는 1982년 「BEM」(*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문서를 출판했다. 이 문서는 '안수 받은 교역'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을 다루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일반 교역이 안수 받은 교역보다 우선이고, 안수 받은 교역이 교회 회중의 일반 교역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 성령은 공동체에게 다양하고도 상호 보완적인 은사들을 부여한다. 이러한 은사들은 온 백성의 공동선을 위한 것이며, 공동체 내에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 행하는 봉사의 형태 속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 모든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발견해 내며 그 은사들을 교회 건설을 위해 또한 교회가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29]

이어서 「BEM」 문서는 안수 받은 교역의 고유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수 받은 교역은 "교회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직분이고, "은사들의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위한 구심점을 제공하는" 직분이다.[30] 그리고 안수 받은 교역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파송으로 보았다.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선택하고 파송하심같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안수 받은 교역으로 부르신다."[31] "안수 받은 교역의 주요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예배와 선교와 목회를 통해 공동체의 삶을 인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32]

그런데, 「BEM」 문서는 일반 교역과 안수 받은 교역이 다음과 같이 상호 관계성 속에 있다고 말했다. 공동체는 안수 받은 교역을 필요로 하고, 안수 받은 교역은 공

---

29)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art. 5, p. 20.
30) 위의 책, art. 8, p. 21.
31) 위의 책, art. 11, p. 21.
32) 위의 책, art. 13. p. 22.

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안수 받은 교역과 평신도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 한편으로, 공동체는 안수 받은 교역을 필요로 한다. 안수 받은 교역의 현존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생각나게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 다른 한편으로, 안수 받은 교역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안수 받은 교역은 오직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들은 공동체의 인정과 지지와 격려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33]

이처럼 「BEM」 문서는 일반 교역을 우선시하고 안수 받은 교역의 고유성을 확보하면서도 둘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강조했다.

B. 안수 받은 교역의 개인적, 집단적, 공동체적 차원

「BEM」 문서는 또한 안수 받은 교역이 개인적, 집단적, 공동체적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안수 받은 교역은 개인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수행되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안수 받은 교역은 개인적(personal), 집단적(collegial), 공동체적(communal)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안수 받은 교역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

33) 위의 책, art. 12. pp. 21-22.

>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 안수 받은 자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이어야 한다. 안수 받은 교역은 또한 공동체의 관심을 대표하는 공동의 과제를 함께 맡고 있는 일단의 안수 받은 교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적이다. 안수 받은 교역과 공동체의 친밀한 관계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여기서 안수 받은 교역의 수행은 공동체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의 발견과 성령의 인도에서 공동체의 효과적인 참여를 요청한다.[34]

「BEM」문서는 이와 같은 안수 받은 교역의 세 가지 차원을 함께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 이 세 가지 측면들은 함께 유지될 필요가 있다. 여러 교회에서 어떤 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다른 측면이 희생되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 받은 직제의 개인적 차원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 차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집단적 또는 공동체적 측면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안수 받은 교역이 그 개인적 차원을 상실한다.[35]

V. 결 론

우리는 II장에서 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

---

34) 위의 책, art. 26. pp. 25-26.
35) 위의 책, commentary 26, p. 26.

정을 살펴보았다.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외콜람파디우스와 부처에게서 기원하여,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1541)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기독교 강요」(1559)에서 성경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III장에서는 칼빈의 장로회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교회론에 근거하여 교회 정치를 논의한 점, 평신도를 교회 정치에 참여시킨 점, 목사와 장로의 협의회인 당회에서 교회를 다스린 점에서 교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모호하고, 목사와 공동체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장로와 공동체의 관계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IV장에서는 「BEM」 문서가 평신도의 일반 교역을 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안수 받은 교역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또 일반 교역과 안수 받은 교역의 상호 관계성을 주장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안수 받은 교역의 개인적, 집단적, 공동체적 차원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BEM」의 교역 이론에 의하면, 안수 받은 교역은 교회 회중의 일반 교역을 위해 존재하고, 안수 받은 교역은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교역 이론에 조명해 볼 때, 장로회 제도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BEM」의 교역 이론에 의하면, 안수 받은 교역은 교회 회중의 일반 교역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장로회 제도의 목사와 장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

고 또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을 강하게 세워 주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BEM」에 의하면, 안수 받은 교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파송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선택하여 안수 받은 교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회 제도는 목사의 사도적 직무를 분명히 강조해서, 목사와 장로의 모호한 관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일반 장로를 '치리 장로'로 부르며 목사직을 장로직에 포함시키는 '두 장로직' 이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BEM」에 의하면, 안수 받은 교역은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을 갖고 있다. 안수 받은 교역의 공동체적 차원과 관련하여, 장로회 제도의 목사는 공동체와 구별되는 사도적 직무도 있으나, 회중의 일원으로서 회중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차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로도 교회 회중에게서 선출되었으므로, 평신도 대표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장로회 제도는 그 동안 안수 받은 교역의 집단적 차원을 가장 잘 실현한 교회 정치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는 혼자 독단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과의 협의하며 교회를 다스리는 품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장로도 평신도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를 계속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목사의 교역을 돕기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칼빈의 장로회 제도는 「BEM」 문서의 교역 이해를 통해 보다 더 성경적인 교

회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실제적으로 안수받은 교역의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은 장로회 제도에서 교회 회중, 목사, 장로회(당회)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의 고유성과 상호 관계성을 잘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래 칼빈은 교회 정치의 외적 형태에 대해서 아주 온건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입법권을 논의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교회법을 절대화 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법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곧 그 법들을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으로 양심을 얽어매고 구속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연계시켜서 마치 경건이 그 법들을 준수하는 데 있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IV. 10. 27).

칼빈은 고린도전서 14장 34-40절을 주석할 때도 교회 정치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생각을 전개했다. 칼빈은 여기서 교회의 '행정적 배열'은 양심을 구속하는 강제력은 없다고 인정했다. 교회의 '외적인 일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유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만일 그것들[바울이 편지하는 글]이 주의 명령이라면, 그 때 그것들은 준수되어야 하고, 사람의 양심에

>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행정적 배열(administrative arrangements)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야 할 동일한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또 다른 곳에서 외적인 일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ordinem istum in rebus externis*)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셨다. 이런 외적인 일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에 대한 것과 같이 신성불가침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유용한 형태이고, 또 전혀 무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36]

이성희는 미래 사회를 정보화, 세계화와 지방화, 블록화 등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미래인에게는 일회성과 유목민적 사고가 발달할 것으로 보았다. 미래 교회도 개교회보다 교회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직자보다 평신도 사역이 극대화되고, 교회 기관보다 공동체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므로, 앞으로 교회 정치가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7] 이런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의 변화는 앞으로 장로회 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

36) *Calvin's Commentary*,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 John W. Fraser (Grand Rapids: Eerdmans, 1973), p. 309; 존 칼빈,「신약성경주석」, 8권 (서울: 성서원, 1999), p. 419.

37) 이성희, "21세기 미래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교회정치제도는 무엇인가?",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편,「오늘의 한국 장로교 정치제도 이대로 좋은가?」, 212-30,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회 제도를 보다 더 신학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할 것이다. 장로회 제도의 좋은 유산은 보전하되 부족한 측면은 보강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안수 받은 직분을 중시하되, 교회 공동체 전체의 교역을 강조하고, 평신도 대표인 장로의 집단적 역할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귀족의 과두 체제(oligarchy) 같은 장로 직분은 막고, 장로의 평신도 대표 기능을 온전히 실현하여,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장로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목사 주도적 교회와 장로 주도적 교회를 종식시키고, 목사와 당회와 교회 회중 전체의 교역이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 정치 형태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Calvin, John.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 초판.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사, 1996.

Calvin, John. 원광연 역. 「기독교강요」 최종판.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사, 2004.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ited by J. K. S. Reid. LCC.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Calvin's Commentary.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anslated by John W. Fraser. Grand Rapids: Eerdmans, 1973.

Calvin's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lated by T. A. Amail. Grand Rapids: Eerdmans, 1973.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Edited by David W. Hall & Joseph H. Hall. Grand Rapids: Eerdmans, 1994.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2) 2차 문헌

Berkhof, Hendrikus. *Christian Fait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Faith*. Translated by Sierd Woudstra. Grand Rapids, Eerdmans, 1979.

Jay, E. G. *The Church: Its Changing Image Through Twentieth Centuries(I, II)*. 주재용 역, 「교회론의 변천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Vischer, Lukas. "The Office of the Elders." *The Ministry of the Elders in the Reformed Church*. Edited by

Lukas Vischer. Bern: Evangelische Arbeitsstelle Oekumene Schweiz, 1992.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Neukirchener Verlag des Erziehungsverein, 1968.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2001.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편. 「오늘의 한국 장로교 정치제도 이대로 좋은가?」. 서울: 엠마오, 1998.

손병호. 「교회정치학 원론」. 서울: 양서각, 1984.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이형기 편. 「교회의 직제와 평신도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황규학.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에큐메니칼연구, 2005.